

a4 미디어 CID 폰트 출시 서체시장 파란 예고

CID 폰트 37개 등 137개 신서체 '민씨글방' 발표

Rip이 아닌 데스크탑에 장착된 폰트만으로 출력 가능한 CID 형태의 폰트가 발표돼 향후 서체 시장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출판 전문회사인 (주)a4 미디어(대표이사 이종석)는 최근 '민씨글방'을 발표하고 58벌 137개 폰트 중 기본 패키지에 포함된 14벌 37개 폰트를 CID 폰트로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윤디자인연구소와 소프트매직이 애플코리아와 계약을 맺고 CID폰트를 납품한 적은 있지만 OX 10.1 이상의 버전에서만 사용 가능해 일반 매킨토시에서 활용 가능한 CID 폰트 출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a4 미디어의 이번 CID 폰트 출시는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서체 시장으로의 원활한 진입과 시장 보호 양지를 놓고 고민을 하던 중 중간을 선택하기 위해 일단 기본 패키지 37개 서체만 CID 폰트로 개방하는 카드를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향후 기존 서체회사들의 반응에 따라 나머지 100개 서체에 대한 CID 폰트 출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기존 서체회사의 대응 디자이너들의 반응 등 활용 여부는 지켜봐야 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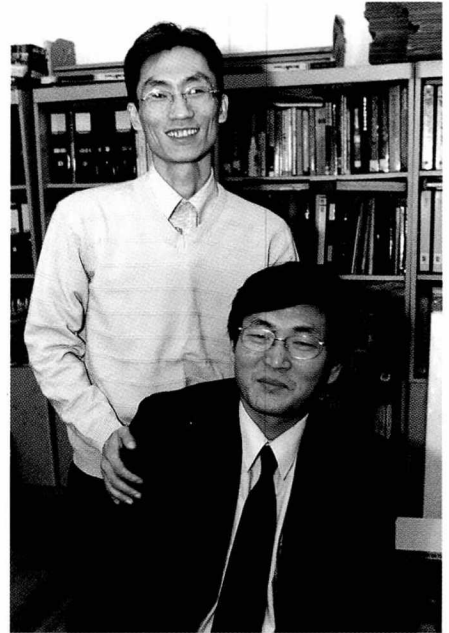
시장 진입을 위한 a4 미디어의 CID 폰트 선택이 성공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우선 신생회사의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고 디자이너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a4 미디어는 서체 디자인 능력에서만큼은 뒤지지 않을 것이라 장담하고 있다.

기존 서체 회사 디자이너들의 경력이 15년을 넘지 못하는데 반해 '민씨글방' 서체를 주로 디자인한 민창기 a4미디어 연구개발담당이사의 디자인 경력은 20년이 넘는다.

민 이사는 조선일보, 세계일보 등 현업 근무 외에도 문화체육부 한글날 전시 초대작가 전시회, 안상수 교수 등이 참가한 VIDAK 한일교류전 전시회 등 다양한 전시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 실력가이며, 소프트매직 '정축자'의 경우 민 이사의 작품이다.

하지만 민 이사의 화려한 경력이 현업에 종사하는 디자이너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는



▶ a4 미디어 이종석대표(사진 뒤쪽)와 민창기 개발담당이사.

좀더 지켜봐야 한다.

이미 2,000여가지가 넘는 서체들이 발표된 상태에서 극히 일부만이 디자이너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민씨글방'에 대한 디자이너들의 호감을 민 이사 개인 능력의 잣대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디자이너에게 선택된다고 하더라도 출력회사의 반응이 남아있다. 출력회사들의 어려움은 메이저 회사들의 신서체 구입도 망설일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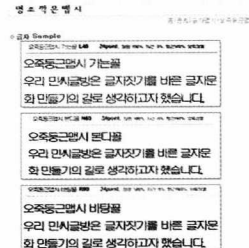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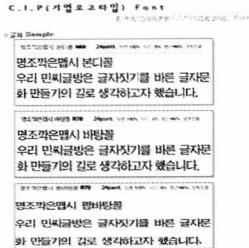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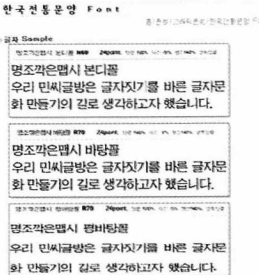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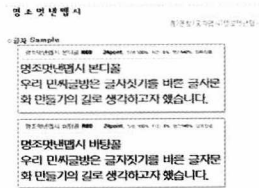
이로 인해 신서체의 경우 비슷한 서체로 디자인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서체를 출력회사들이 받아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CID 폰트라 할지라도 출력회사들은 5대 메이저 회사들에게 부담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또 다른 서체회사가 등장하는 것에 대해 새로운 비용 지출을 불러 올 것이라며 반기지 않는 눈치이다. 신생 출력사의 성격상 처음부터 비용 부담이 크진 않겠지만 결국 기존 서체회사들과 비슷한 수준의 비용 부담을 가져올 것이라는 게 신생 서체회사의 출발을 지켜보는 출력사의 반응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문제시되는 것은 기존 서체회사들의 대응방식이다. 기존 서체회사들의 경우 '민씨글방'의 시장 진입이 여간 곱끄러운 게 아니다. 소프트웨어와 한국컴퓨터그래피 등에서 이미 고객과 접촉한 적이 있는 '민씨글방'을 단순한 신생 서체로 보기에 다소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신문시장에서 상당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모 회사가 일반 서체시장에 뛰어들면서 겪었던 어려움이나 지방 서체 시장에서 나름대로 인지도를 확보하고 서울 시장 진입을 노리다 난항을 겪고 있는 모 서체회사의 어려움 등은 일부 서체회사의 잘못된 대응과 결코 무관치 않다.

디자이너를 위한 일부 배려 돋보여

a4 미디어가 서체 개발을 시도한 계기는 온라인 출판에서 오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겪으면서부터이다. 웹 상에서 보이는 폰트와 출력되는 폰트가 다소 다르게 나타나 디자이너의 의도가 제대로



로 반영되지 못했던 것이다.

‘민씨글방’은 총 6개의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체가 주로 포진되어 있는 기본 패키지는 14벌 37종으로 이번에 발표된 CID폰트 구성군이 다.

‘플러스 팩 1’은 18벌 43개 서체로 기본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은 본문용 서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플러스 팩 2’는 11벌 24개 서체로 고서에 나온 글자체를 현대화시킨 서체들이며, ‘플러스 팩 3’은 조합형 서체로 15종 33개 서체가 있다.

‘플러스 팩 4’는 클럽아트를 모아놓은 것인데 전통적인 문양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며, 필요한 문양을 한글로 입력하면 해당되는 이미지가 나타난다.

‘플러스 팩 5’는 웹 폰트를 묶어놓은 것이다.

‘민씨글방’의 서체들은 기존 서체와의 차별화를 위해 원도의 개념을 바꿨다. 기존 서체회사의 경우 본문 신명조체의 경우 최정호 선생의 신명조를 원도로 써서 폰트를 디자인 해 왔다.

하지만 ‘민씨글방’ 민명조의 원도는 옛 궁서체 원도를 활용했다.

아울러 디자이너들의 편의를 위해 서체 명칭을 분명히 해 디자이너가 필요로 하는 서체를 이름 만으로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힘찬 고딕 작은 풀 M120, B150’이나 ‘널판 못질한 체 M100, B130’,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폰트의 명칭은 디자이너들이 필요로 하는 폰트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배려이다.

‘민씨글방’의 서체들을 디자인 한 민창기 이사는 “글자는 디자인하는 전문가들도 그저 기능성과 단순한 멋과 미에 그리고 우리의 글자와는 배치되는 서구의 디자인에 맞추어 우리의 글자와 문화 역사의 뿌리를 생각하지 못하고 작업을 진행해 왔다”며 “민씨글방은 사라진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글자맵시를 되살리고 만들어 가는 것은 물론 단순한 미적 디자인으로서의 글자 디자인이 아니라 문화를 생각하고 역사를 담은 글자 디자인을 통해 우리 고유의 한글 맵시를 만들고 지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용우 기자 <photoyw@print.or.kr>